

군산시, 문화도시 공모 '도전장'

올 4분기부터 공모 대응전략 마련 전력

군산시가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돼 문화공유도시 군산이라는 비전 아래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2년부터 2년간에 걸쳐 문화공유포럼, 문화공유대학, 동네문화추진단 등 12개 사업에 7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군산만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난 4년간 군산시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조 변화에 따른 제5차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는 대한민국 문화

도시 공모 사업 대응전략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추진방향은 자유와 연대의 정책 가치를 기초로 창의적 문화를 창출하는 도시,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도시, 문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다. 연대를 통한 주민-문화예술인-청년기업-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선도, 문화산업-관광-생활-교육 등 지역 정책의 구심점으로 지역 문화발전 선도, 문화도시-인근도시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형 도시로 지역문화의 동반성장 선도를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군산=김관곤기자

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된다. 선정 도시에는 내년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3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추진방향은 자유와 연대의 정책 가치를 기초로 창의적 문화를 창출하는 도시,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도시, 문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다. 연대를 통한 주민-문화예술인-청년기업-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선도, 문화산업-관광-생활-교육 등 지역 정책의 구심점으로 지역 문화발전 선도, 문화도시-인근도시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형 도시로 지역문화의 동반성장 선도를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기업 ㈜위바이옴이 익산에서 고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대량 생산을 통해 세계 선도기업으로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 선도기업으로 한 걸음

위바이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프로바이오틱스 공장 '준공'

건강기능식품 기업 ㈜위바이옴이 익산에서 고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대량 생산을 통해 세계 선도기업으로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위바이옴은 21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중오 익산시의장을 비롯,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최영민 한국식품연구원 센터장, 고광표 고바이오랩 대표, 황은기 이마트 상품기획본부장, 위바이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위바이옴은 지난해 3월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경쟁력을 갖춘 '고바이오랩'과 유봉명과 소비자 마케팅 역량을 갖춘 이마트가 합작한 건강기능식품 기업이다.

위바이옴은 200억원을 투자해 국가 식품클러스터 내부 1만 4,200㎡(약 4,295평) 부지에 고기능성 프로바이옴

원료 대량 생산 목적의 공장을 건설했다. 이 공장은 앞으로 2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위바이옴은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개별 인장형 원료 확보를 통해 2025년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형진 ㈜위바이옴 대표는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장 준공을 통해 위바이옴은 고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향후 원료와 제품을 아우르는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건강기능식품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선도하는 위바이옴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위바이옴이 세계로 비상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바티칸의 김대건 신부, 가까운 익산서 만나볼까



익산 망성면 나비위성지 재조명... 갓 쓰고 도포 두른 한국인 사제

최초의 한국인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상 바티칸 설치

가톨릭 성지인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이 설치되면서, 익산에 있는 김대건 신부의 동상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8일 바티칸 시국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갓 쓰고 도포를 두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이 세워졌다. 아시아 출신 성인의 성상이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된 것은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갓 쓴 김대건 신부의 동상은 바티칸이 아닌 가까운 익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망성면 화산리에 자리한 '나비위성지'에서다. 나비위성당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서품과 귀국을 기념하는 사적이다.

본당의 지붕은 팔각지붕으로 한식 기와를 얹었고, 지붕 아래로 팔각 채광창을 뒀다. 양 측면 개방된 회랑에는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한국

전통 목조건축과 서양식 성당 건축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당 뒤쪽 너른 잔디밭 광장에 가면 갓 쓴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도포를 걸치고 한쪽 손을 든 성인의 모습이 바티칸에서 공개된 성상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

바로 뒤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야트막한 산이 나온다. 그 산마루에 너른 평야를 가르는 금강의 그림 같은 풍광을 둘러볼 수 있는 정자 '망금정'이 있다. 그 옆으로 25세 나이로 순교한 김 신부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다.

시 관계자는 "나비위성지는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뒤 귀국하는 길 한변도에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에는 천주교 성지 나비위성당과 함께 원불교 중앙총부 등이 위치해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출근길 청림 실천 캠페인 나서

정현을 익산시장이 명절을 앞두고 수평적 소통문화 조성과 반부패·청렴 가치 확산을 위한 청림 실천 캠페인을 주도했다.

시는 상호존중, 수평적 소통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1일 '청바지 데이'를 운영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과 허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간편한 청바지 차림을 하고 청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림 커피를 나눠주며 청림 의지를 다졌다.

청바지 데이는 권위적인 정장 대신, 편안한 차림으로 출근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평적 소통 활성화를 이루고자 마련한 반부패 청렴 집중 시책이다. 청바지는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와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공직사회 청림 공감

대 형성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며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수평적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활력 넘치고 건강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들과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반부패 청렴 집중 기간 운영에 따라 내·외부 청림 소통 활동을 실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본격 실시

군산시는 2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주거지에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통합제가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할 협

력기관 4곳(군산의료원, 늘사랑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적기업올담푸드, 군산개인택시 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가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청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의 상담을 통해 수립된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1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필요에 따라 주거 환경개선, 냉난방 기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김관곤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10월 2023 KBL 컵대회 개최

2023 KBL 컵대회가 오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KBL 10개 구단과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까지 총 11개 팀이 4개조로 나뉘어 조별 예선을 치른 후 각 조 1위 팀 간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권을 놓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개막 첫 경기는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부터 A조에 편성된 상무와 수원 KT 경기로 시작된다.

올해로 4회차를 맞는 KBL 컵대회는 2023-2024시즌 정규경기 개막을 앞두고 팬과 미디어의 관심 및 기대감 조성과 각 팀의 경기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대회다.

지난 2020년 군산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 이후 다시 한번 군산에서 개최하게 되며 시민과 농구팬들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산=김관곤기자

익산시 청년시청, 게임 접목 직무 체험 '호응'

익산시는 21일 원광대학교와 함께 청년시청에서 '직무 이스케이프(탈출)'를 개최했다.

원광대 재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방탈출 게임 형태를 접목한 형태로 진행했다. 150여 명의 참가자들이 협력자들이 제시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도장을 획득해 탈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직무 이스케이프는 △경영지원 △마케팅 △영입관리 △생산품질 △행정사무 △유통(판매) △IT개발 △금융 등 청년들의 수요와 관심이 높은 직무로 구성됐다.

건설팅존에서는 취·창업과 관련된 청년들의 궁금증에 적극 대응하고 이벤트존에서는 미션 수행 후 받은 스캠프로 캘리그래피, 목공예 체험, 타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한 참가자(원광대 행정학과 3)는 "매우 신선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